

## 學生指導의 올바른 방향

全 竣 秀

(西江大 經營學科)

### 1. 新入生 指導

어떤 조직에 있어서도 해마다 구성원의 1/4이 새로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은 기존 조직에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조직은 그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단시일 내에 기존 조직의 질서에 순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학교는 군대조직 처럼 틀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고 훈련이라는 용어보다는 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우선 신입생 입장에서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지도방법과 개별상담을 통한 개별지도방법으로 양분할 수 있다.

고등학교가 평준화된 이후 특정대학의 특정학과에 입학한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해 보면 거의 한 학교에 한 명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전 대학 학과에 출신 고등학교가 1명인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엄청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새로운 대학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하고도 심히 과장된 정보에 의해 이미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다. 이에 덧붙여 주위에 의논할 만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신입생의 심리상

태를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신입생 지도는 바로 이러한 신입생의 心理狀態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1) 目 的

신입생 심리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를 위해 생활상담실과 교목실 등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 기관에서는 신입생 신체검사 후 훈련된 심리학전공 대학원생 또는 전문상담요원들에 의해 개별심리분석을 위한 심리상담 분석조사서를 작성하게 된다. 분석자료를 통해 통계가 작성되며,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여 특별히 개별지도가 요구되는 학생들의 명단이 작성되어 생활상담실과 교목실이 합동으로 개별상담지도하게 된다. 또한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에게도 명단이 통보되어 별도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된다.

현실적으로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한 것이지만, 일단 신입생이 되고 나면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였다고 보고 학교가 선택한 학생 한 명 한 명을 잘 다듬고 교육시켜 훌륭한 학교의 一員으로 만드는 것이 지도의 목적이다.

#### 2) 指導 方案

신입생 지도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동아리 선

배들, 학과 선배들, 고교동문 선배들이 행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학교당국에서 행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된다. 학교당국의 오리엔테이션 이전에 행하여지는 선배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온갖 정보의 홍수는 신입생들로 하여금 당혹감과 함께, 특히 부모로부터 세뇌받은 운동권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으로 인하여 새로운 대학사회에 대한 친근감과 더불어 심한 저항감을 동시에 갖게 한다. 이러한 혼돈된 마음을 정리하여 주고 선배에 대한 기본적인 信賴感을 학교라는 공식기구를 통해 성립시켜 주는 것이 학교주도 오리엔테이션이다.

학교의 오리엔테이션에 많은 교수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신입생들로 하여금 혼돈된 마음을 정리하여 주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입소식에는 학교의 가장 권위있는 책임자인 총장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고 학교 배지를 신입생 대표에게 달아주는 행사도 신입생들의 신뢰감을 결정적으로 높여주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달받게 될 대학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각 단과대학별 행사에도 학장을 비롯한 학과장들이 참석하여 신입생들에게 각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는 오리엔테이션을 행하는 것도 신입생들의 심리상태를 더욱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주어지는 정보라고는 고작 그 대학이 일류인가, 이류인가 그리고 운동권을 절대 조심하라는 부모의 끊임없는 세뇌교육이다. 신입생 부모들의 문의 가운데 절대 다수는 운동권에 대한 염려이다. 행여나 운동권 선배에 포섭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입생이 접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선배는 운동권이며, 신입생이 가입하게 될 동아리의 거의 대부분도 운동권성향의 서클이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재학생의 거의 전부가 학생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순수한 정의의식과 결부될 때, 그 분포는 옅어지면서 더욱 넓게 퍼져가는 것이다. 막상 꼭 꼬집어 누가 운동권인가 하는 문제는 최근, 특히 금년 새학기에 들어와

서는 더욱 규명하기 힘들다. 학교가 신입생이 운동권에 휩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신입생들로 하여금 사회를 보다 건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건전한 정서를 길러주며, 미움보다는 사랑이 훨씬 장기적인 치유 방법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훈련시켜 주는 방법 이외는 없다. 사회 자체가 부조리란 안고 있고 기성세대가 끊임없이 원인제공을 하는 한, 젊고 순수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맹목적인 질서 순응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생지도는 항상 학생 편에서 같이 나란히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정면으로 맞서서 하는 학생지도란 불가능하다. 꾸밈없고 설득은 학생과 나란히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학생지도는 옆에서 끌어안고 보다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노력에 효과적 방안 중의 하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동문 선배와의 대화시간을 넣는 것이다. 졸업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막연함을 해소시키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동문 선배들로부터의 이야기는 큰 도움을 준다.

금년도 서강대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강원도 속초의 설악플라자 콘도에서 1차(경영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와 2차(경상대학, 이공대학)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동문 선배와의 대화시간에는 연에게에 종사하는 선배, 레저업계에 종사하는 선배, 자영업하는 선배 등 학교시절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선배들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많은 신입생들이 자기 전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성보다는 학력고사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를 선택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 4년의 학과가 일생을 결정짓는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특히 서강대의 경우 서강고등학교라는 별명이 있듯이 학교의 엄격한 학사관리에 대해서 너무 과장된 정보가 전달되어 대학생활을 낭만이 전혀 없는 끊임없는 숙제와 시험으로만 이어지는 삭막한 생활로 생각하고 있는 신입생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동문 선배들

에게는 과거 학사관리가 더욱 엄정하였을 때에도 어떤 식으로 즐기고 달생을 피웠는가를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해 달라고 미리 주문하여 신입생들의 공포심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의 백미는 역시 대동제라고 불리는 캠프파이어 축제이다. 입학시험 준비로 찌들리고 억눌린 젊음의 낭만과 기개를 마음껏 소리지고 떨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이야말로 신입생들로 하여금 대학생활의 자유와 낭만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행사이다.

대동제 이후 밤새 계속되는 각 과별 행사와 그후 새벽까지 이어지는 신입생들간의 배게싸움은—은 건물 전체를 밤새 뛰어다니며 서로 치고 받고 또 출격하여 무차별적으로 아무하고나 벌이는—처음보는 사람에게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지만, 당사자 신입생들에게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또 풀 수 있는 정말로 신나는 기회인 것이다. 아직까지는 배게에 맞아 뇌진탕을 일으킨 학생은 없었다. 오리엔테이션의 정식 프로그램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행사가 말로 가장 중요한 비정규 프로그램 중목이다.

## 2. 在學生 指導

### 1) 目的 및 方案

재학생 지도는 3, 4학년이 되면 장래 진로문제를 상담하는 취업지도와 운동권학생들의 과격한 학생활동을 저지하는 실적과 哀訴가 있을 뿐, 실제 지도하기란 힘들게 되어 있다. 특히 잃을 게 없는 학생들, 즉 학점도 엉망이고 학업에 뜻도 없고 사회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냉소적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도의 차원이 아닌 종교적인 교화가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학교가 이들 핵심 운동권 세력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특히 교내 비리로 이들 세력에 약점이 잡힌 경우에는 학생지도라는 용어가 더욱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저 타협과 회유만이 있을 뿐이다. 만일 학교가 교내 비리로 인해 약점을 잡히지 않는다면, 우선은 엄정한 학사관리부터 시행하여 저학년 학생들의 동요를 불러 일으키야 한다. 즉, 아직은 잃을 게 많이 남아있는 저학년 학생들을 동요시켜 상층 지도부의 힘을 약

화시키야 된다. 학생운동이란 집단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뒤에 어느 정도의 학생이 모여주느냐에 따라 발언권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嚴正한 學事管理만이 학교를 바르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도방법이다. 나머지 다른 지도방안들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지도 그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만인지, 운동권 학생과 비운동권 학생의 시각 차이는 무엇인지,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분석자료는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본인이 책임을 맡고 있는 서강대 학생처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청취해 학생들의 현재 의사와 앞으로의 바람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설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 ② 총학생회의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
- ③ 문민정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

이 중 특히 ②항의 총학생회에 대한 의견조사는 흔히 총학생회가 학생대중의 뜻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며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일반 학생의 뜻을 구체화함으로써 학교당국과 총학생회 간의 마찰을 줄이고 총학생회 활동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함이다. 주요 설문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학교당국에 대한 제언

설문내용과 방법은 총 9개의 문항내용 중 학교당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5가지

〈표 1〉 설문응답자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분포

성 별	남 : 84	입 학 년 도	'84 : 1
	여 : 16		'85 : 2
단 과 대 별	문 과 대 : 17	학 년 도	'86 : 4
	사회과과대 : 7		'87 : 14
과 대 별	이 과 대 : 8	학 년 도	'88 : 22
	공 과 대 : 15		'89 : 7
단 과 대 별	경 상 대 : 16	학 년 도	'90 : 14
	경 영 대 : 37		'91 : 20
			'92 : 15

〈표 2〉 학교당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문항내용	평균값
1. 필요공간의 확보(기숙사신축, 도서관 증축 및 휴식공간확보 등)	3.4
2. 연구관련시설확충(낙후된 실험설비 교체 등)	3.2
3. 교수채용규모 확대	3.2
4. 가톨릭의대와의 통합 추진	2.8
5. 엄정한 학사관리제도 유지	2.8
6. 서강의 단결을 위한 사업추진(동문회 관 건립, 운동부 신설 등)	2.8
7. 학교홍보의 강화	2.7
8. 장학금 지급 확대	2.2
9. 교내 환경미화	1.7

주) 5점 만점 기준

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즉, 각각의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에 의해 우선순위에 따라 9개 문항 중 5개를 선택하였다. 평가방법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응답한 경우(1위)에는 5점을 주고, 다섯번째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한 경우(5위)에는 1점을 주었다. 위 표에는 각 문항별 내용과 평균값(5점 만점 기준)이 나타나 있다. 학생들이 학교당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1위 필요공간의 확보(3.4점), 2위 연구관련 시설확충(3.2점), 3위 교수채용규모 확대(3.2점) 등이었다. 즉, 이는 물리적인 시설이 현재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설비의 지속적인 확충·신축·도입이 필요하고 추가적 교수충원도 절실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가톨릭의대와의 통합(2.8점)도 4위를 차지해 서강의 발전을 위해 학교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에게 인식되어 있고, 서강의 특징인 엄정한 학사관리제도(2.8점)는 5위를 차지해 학생들에게 현행 학사제도가 비교적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알려주었다(위의 〈표 2〉 참조).

나. 총학생회에 관한 설문조사  
지금까지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평가부분에서

〈표 3〉 총학생회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문항내용	평균값
1. 학생 인권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3.6
2. 학내민주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3.5
3. 사회봉사활동(농활, 야학, 빈민구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3.3
4. 정치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	3.0
5. 성숙한 대학문화 창달에 기여해 왔다.	2.8
6. 학업풍토 조성을 위해 매우 힘써 왔다.	2.5

주) 5점 만점 기준

〈표 4〉 향후 총학생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문항내용	평균값
1. 학내민주화의 발전	4.3
2. 성숙한 대학문화 창달	4.2
3. 학생 인권복지의 개선	4.0
4. 건전한 학업풍토 조성	4.0
5. 사회봉사활동(농활, 야학, 빈민구제 등)의 증대	2.8
6. 정치적 참여 확대	2.5

주) 5점 만점 기준

는 학생들의 인권복지향상 부분(1위 : 3.6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온 과업이라고 평가되었다. 서열별로 언급하면 학내민주화 향상에 대한 기여(2위 : 3.5점), 사회봉사활동(3위 : 3.3점), 정치적 참여(4위 : 3.0점), 성숙한 대학문화 창달에 대한 기여(5위 : 2.8점) 등이었다. 학업풍토 조성에 대한 기여 부분은 6위(2.5점)를 차지해 가장 소홀히 다루어 온 부분으로 제시되었다(위의 〈표 3〉 참조).

〈표 4〉는 총학생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다. 응답결과를 보면 기존의 총학생회 주요과제라고 여길 수 있는 정치적 참여의 확대(6위 : 2.5점), 사회봉사활동(농활, 야학, 빈민구제)의 증대(5위 : 2.8) 측면보다는 상대적으로 학내민주화(1위 : 4.3점), 성숙한 대학문화 창달(2위 : 4.2점), 학생 인권복지제도의 개선(3위 : 4.0점), 그리고 건전한 학업풍토 조성(3위 : 4.0점) 등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보다 많은 노력과 자원을 학외문제보다 학내문제에 투입하기를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문민정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 문민정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5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이 설문내용이었다. 학생들의 응답순위를 보면 1위 부정비리척결(3.42), 2위 정치적 민주화(3.28점), 3위 민족통일성취(3.26점), 4위 지역감정의 해소(3.25점), 5위 차별해체(3.18점) 등이었다. 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경제분야보다는 우선적으로 정치분야의 성숙도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과 개혁적 조치가 실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민주화수준은 5점 단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8점을 받았다.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76명이었고, 보통이라 응답한 사람이 20명, 그리고 보통 이상이라 답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해 대다수의 학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적 개혁조치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위에서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부정비리 척결과 정치적 민주화를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한 응답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문민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문항	내용	평균값
1.	부정비리척결	3.42
2.	정치적 민주화	3.28
3.	민족통일성취	3.26
4.	지역감정의 해소	3.25
5.	차별해체	3.18
6.	물가안정	3.17
7.	소득분배정의 실현	2.86
8.	제출간의 위화감 및 불신풍조해소	2.81
9.	토지공개념도입 및 금융실명제 실시	2.77
10.	첨단과학기술 개발지원	2.68
11.	중소기업지원 확대	2.43
12.	교육투자증대 및 대학자율권 보장	2.40
13.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2.36
14.	고용증대	2.17

주) 5점 만점 기준

〈표 6〉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민주화수준

수준	비율
높다	4
보통이다	20
낮다	54
매우 낮다	22

### 3. 結 言

학생지도라 함은 작게는 학교의 교육목적에 맞도록 학생을 지도함에 있고, 크게는 국가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로는 학생지도가 정부당국에 의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말생을 일으키지 않는 유순한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잘못 시행되어 왔다. 운동권의 反체제 학생은 정부당국이나 학교당국에 의해 거의 敵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학교와 총학생회는 둘 다 학교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대결로써 서로에게 흠집 내는 데 열중하여 왔다.

학생지도는 학생편에 서서 사회의 제반 현상을 같은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하며, 학생들의 굴절된 시각을 옆에서 겨안고 바로 잡아주는 노력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지도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생 본분의 재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반 사회현상에 관한 냉철한 인식과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차이를 지성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교는 속성상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학생활동의 약화는 곧 옛날의 지나친 학교 권위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도적인 대화 채널의 확보와 학원민주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만 학교의 민주적 발전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시대착오적인 현실참여나 과잉행동을 방지하고 열정적인 정의감을 상당부분 학원내의 민주적인 절차와 대화에 의해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학생지도의 참목적은 정의감있고 실력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길러주고, 규칙 아래 행동할 수 있는 절제된 현실감각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